

트리폴리서 최후 일전 벌일 가능성

■ 벼랑 끝 몰린 카다피 마지막 선택은

국내 은신 또는 해외도피 할 수도 일부선 “히틀러처럼 자결” 전망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자신의 ‘최후의 보루’였던 수도 트리폴리까지 반군에게 내주면서 궁지에 몰리자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카다피의 마지막 선택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형세다.

◇최후까지 싸운다=현재로서는 카다피가 수도 트리폴리에서 끝까지 버티며 최후의 일전을 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는 그동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리비아 군사작전을 펼치며 자신을 계속 압박해 왔음에도, 간헐적으로 육성 또는 방송 연설 등을 통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강조해왔다.

미국 CNN 방송도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벼랑 끝에 몰린 카다피가 퇴진 이 아니라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다피가 리비아를 떠날 징후는 없으며 그가 최후의 ‘발악’을 할 경우 어떤 형태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 섞인 관측을 내놨다.

◇꼭꼭 숨는다=‘국내은신’ 또는 ‘해외도피’=카다피가 자신의 근거지인 수도 트리폴리를 떠나 숨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영국 런던에 주재하는 반군 측 외교관은 22일 트리폴리를 장

힘을 잃었다.

워싱턴타임스도 카다피 관저에서 고속도로로 연결된 트리폴리 국제공항에 VIP 의전용 차량 행렬과 최소 2대의 외국 항공기가 대기 중인 것이 포착됐으며 망명 가능성을 제기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카다피가 앙골라와 짐바브웨로 망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하는가 하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철약국인 쿠바나 베네수엘라로 달아날 가능성을 보도하는 등 일부 외신들은 그의 해외 도피나 망명에 무게를 싣고 있다.

◇히틀러처럼 자결한다=카다피 정권의 2인자로서 그를 47년간 지켜

봤던 아부델 파타흐 유네스 알-아비디 전 내무장관은 지난 2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자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네스 전 장관은 극도로 자존심이 강한 카다피 특유의 성격을 언급하며 “그가 쓰러질 때까지 저항하거나 히틀러처럼 자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33년간의 철권통치 끝에 철창에 갇혀 재판을 받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과 민중봉기에 때밀려 지난 1월 사우디 아라비아로 망명한 지네 알 아비디네 벤 알리 전 튀니지 대통령을 본 카다피가 수차례로 최후를 피하려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카다피 시대 끝났는데요” 22일(현지시간) 리비아 반군이 점령한 벤가지의 해변에서 2살 난 바시르 카미스(오른쪽 앞)가 옛 리비아 국기를 들고 누나들과 함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카다피 차남 체포 안돼... 트리폴리서 목격

AFP·BBC 보도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차남인 사이프 알-이슬람이 반군에 체포되지 않았으며 아직 수도 트리폴리에 있다고 AFP와 BBC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 특파원을 비롯한 일부 기자들은 사이프 알 이슬람이 트리폴리 남부에 있는 카다피의 관저 앞-아지리아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BBC는 사이프가 트리폴리의 호텔에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사이프가 반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도 사이프가 체포돼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이프는 관저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체포 소식을 언급하며 “나는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버지) 카다피가 트리폴리에 안전하게 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카다피 해외 은닉 비자금 500억달러”

美 300억·英 200억 弗 동결

리비아 재건자금으로 쓰일 듯

반군에 의해 축출될 상황에 놓인 리비아 최고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 규모가 500억 달러(한화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사태 동향에 정통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23일 “현재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이 압수·동결한 카다피의 해외 비자금 규모는 천문학적 규

모”라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5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중 미국 금융당국이 재무부 행정 명령에 근거해 동결한 비자금이 300억 달러, 영국 금융당국이 압수·동결한 비자금이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들 비자금의 대부분은 카다피의 가족과 측근들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다피의 해외 비자금은 미국, 영국 등 관련국들과 과도국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리비아 재건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산 국유지로 유지해야”

전남도의회 “서울대에 무상 양도는 명백한 특혜”

서울대 법인화에 따라 백운산·지리산이 사유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3일 ‘국립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지리산 학술림 서울대 양도 반대’성명을 내고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는 백운산과 지리산 일부를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도 현재처럼 국유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광양시(80km)와 구례군(82km) 일대 162km에 달한다”면서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자치 수의사업을 위해 활용하

거나 매각할 경우 지역들이 큰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사업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엄연한 국유 재산인 백운산·지리산의 학술림을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는 것은 국유 재산을 사유화하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용재(광양·민주)의원은 “절차도, 내용도 잘못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폐지해 국민의 재산인 백운산과 지리산을 지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는 백운산과 지리산을 국민의 재산으로 유지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해당 지역 주민 대표 10여명은 지난 18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특임장관실, 국회 등을 합동 방문하고, 백운산·지리산 반환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리산·백운산 학술림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도쿄대 연습림으로 편입됐다가 광복 후 서울대가 넘겨받았으며 최근 서울대 법인화로 광양시 백운산 내 80km, 구례군 지리산 내 82km의 학술림이 서울대 재산으로 편입돼 사유화될 위기에 처했다.

가스전 개발 41억달러 계약 체결

한-우즈베크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41억 달러(4조1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자원개발 계약이 체결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저녁(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가스·

화학 플랜트 건설의 성공적 추진에 합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23일 이틀간의 몽골 일정을 마치고, 23일 오전 중앙아시아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

수르길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인근 1300억㎥(액화천연가스 환산시 9600만, 원유 환산시 8억 3000만 배럴)의 가스전을 개발·생산

하고,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운영까지 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증권 시장 현대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IT 기술 수출 계약도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뒤, 중앙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인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김정일 러시아 울란우데 도착

오늘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께 부랴티야 자치 공화국의 주도인 울란우데 기차역에 도착해 바체슬라프 나고비친 부랴티야 공화국 대통령 영접 행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약 20분 동안 진행된 영접 행사가 끝난 뒤 특별열차에 싣고 온 메르세데스 승용차를 타고 현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시내 중심

가 방향으로 향했다. 현지 언론들은 김 위원장 일행이 바이칼 호수 동쪽 해안가의 유원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울란우데의 산업시설과 바이칼 호수 등을 둘러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2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울란우데 도착 당일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체류국민 14명 귀환

북한의 “72시간 내 철수”를 통보받은 금강산 지구 내 우리 국민 14명과 조선족 2명 등 16명이 23일 오전 모두 철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32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 이로써 금강산지구에는 우리 국민 1명도 남지 않게 됐다. 철수한 우리 국민은 담당관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관계자 등이다. 직원들과 함께 철수한 현대아산 이형균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은 “금강산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이 철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 금강산을 떠난 우리 직원들이 다시 모여 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광주지점 OPEN 기념!
가격은 특가! 품질은 품격! 대!방!출!

자유투어 ★품의 휴양지★ 하와이 5일 ONLY 아시아나 항공 취항기념 9/22~12/1

자유여행 699,000 원~
실속여행 799,000 원~
품격여행 999,000 원~

Good! 찬스! ★무릉도원 바로그곳★ 장가계/천문산 4/5일 아시아나 항공 이용 10/26까지

실속여행 499,000 원~
품격여행 649,000 원~
포함사항 : 항공동행, 천문산, 발맛사지, 상강유람선(선내식), 2억보험

호남지역 출발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8/27~10/28출발(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79,000 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29,000 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8/22~10/27출발(월,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 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679,000 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19,000 원~

광양해리 큐슈 3박 4일 [8/28~12/21출발(일,수)]

8/28,31 9/4,7 99,000 원
9/11 추석기간 199,000 원
9/14,18,21 129,000 원
9/25,28 149,000 원
10/2~12/21 179,000 원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8,9,10월 출발기준-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 원~
서유럽4국(프,스,이,영) 8일 1,990,000 원~
서유럽5국(영,프,라우) 10일 2,090,000 원~
서유럽6국(영,프,라우) 12일 2,290,000 원~
서,동유럽완전일주 15/16일 2,790,000 원~

홈쇼핑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 원~
NO-TIP 동유럽 6국 9일 1,890,000 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 원
미서부 3대캐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 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 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 원~

예/약/상/담

광천점 350-6226

두암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수완점 574-1300

조선대점 227-8255

진월점 382-5353

첨단점 233-2627

충장점 222-9796

하남점 954-9700